

역사문화도시 「옛 모습 가꾸기」의 건축기획적 접근

이 왕 기 (李 王 基)

목원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1. 머리말

지난 반세기 동안 도시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지만 그 성장과정에서 인간이 소외되고, 형식에 치우쳐 졌으며 어느 도시나 똑같은 무채색의 획일화로 발전해 왔다. 도시는 다양한 삶의 문화를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그 그릇을 만들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의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릇은 항상 변하고 있어 생명체와 같기 때문이다. 좋은 삶은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도성장이 가져온 폐단은 도시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획일화된다는 것이다. 도시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든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이미지와 고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도시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은 역사문화가 그 배경일 수도 있고, 새롭게 만들어 가

는 전통도 그 배경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의 고유한 정체성이 왜 필요한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것은 경쟁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다. 경쟁력은 도시의 자생력을 키워 스스로 도시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정체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환경을 찾아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남 古都 옛 모습 재현 사업」도 정체성 찾기의 일환이다.

이 글은 충남의 고도를 대상으로 옛 모습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이른바 「옛 모습 가꾸기」의 접근방법론에 관해 건축기획적 측면에서 언급해 본 것이다. 먼저 과제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역의 도시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II. 「옛 모습 가꾸기」 접근방법

1. 개념과 목표설정

지방 도시에서 옛 모습 가꾸기는 현재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이러한 사업이 모범적으로 선행되지 않아 건축적으로 성공사례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관 주도 하에 진행되었던 몇몇 선행 사례는 다만 전통건축의 복원 또는 복구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계획은 지역 주민생활과 유리되어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로 보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옛 모습 가꾸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옛 모습 가꾸기 사업은 지역주민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옛 모습 가꾸기와 유사한 선행사례는 ‘○○보존사업’ 또는 ‘○○복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 주민의 참여가 제한되고 관 주도하에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업특성 때문에 주민생활과는 일체화가 되지 않고 실효성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옛 모습 가꾸기가 시행착오 없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주민이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해야 한다. 옛 모습 가꾸기에는 물리적인 형식(하드웨어)에서부터 비물리적인 내용(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훌륭해도 소프트웨어가 보잘 것 없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고, 반대로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하드웨어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역

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옛 모습 가꾸기」에 대한 하드웨어의 공간범위는 단위건축물로 한정되는 아주 작은 범위에서부터 거리, 동네, 구역, 도시와 같은 광범위한 지역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면 하나의 역사적 건조물을 대상으로 그 주변 일대를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명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역사문화재의 보존과 도시경관의 개발이라는 2가지 목적을 함께 이루어낸 사례가 된다. 이와 반대로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옛 모습 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주민생활과 유리될 수가 있다. 편리한 현대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설혹 사업이 이루어 졌다해도 변칙적인 운영으로 초기에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옛 모습 가꾸기 사업은 지역주민의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옛 모습 가꾸기」에 대한 개념은 ‘전통적인 옛 모습을 지역주민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모든 활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옛 모습 가꾸기 사업을 지역주민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사업의 성패는 지역의 거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단계에 들어서 부터는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옛

모습 가꾸기」에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사업내용이 전혀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에서의 참여는 오히려 거부감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계획단계에 들어가는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과제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모든 주민이 사업에 찬성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주민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의 개념과 목표설정 단계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사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목표 설정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가들의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결국 사업 시행을 결정하는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옛 모습 가꾸기」사업의 목표는 크게 안전성, 쾌적성, 건강성, 편리성, 문화성, 정체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열거한 목표 중 어느 것이 우선적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모두가 중요한 목표이다.

안전성은 옛 모습 가꾸기의 목표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다. 아무리 잘 이루어진 옛 모습 가꾸기라도 안전성이 결여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안전성이다. 두 번째는 쾌적성이다. 지역 주민이 옛 모습 가꾸기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쾌적성을 무시할 수가 없으며, 방문자들에게도 쾌적성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목표가 된다. 세

번째 건강성도 무시할 수 없는 목표중 하나이다. 환경을 파괴하고 공해를 유발하는 옛 모습 가꾸기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환경 친화적이고 건강한 「옛 모습 가꾸기」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편리성이다. 옛 모습 가꾸기로 인해 주민생활이 불편하게 된다면 이 또한 목표에 접근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편리성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옛 모습이 현대적으로 꾸며지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실생활과 향수를 느껴 찾아오는 방문자의 욕구를 어떻게 동시에 충족시켜줄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문화성이다. 문화성은 옛 모습을 설명해 주는 배경이 되고 방문자들에게 이야기꺼리를 제공해 준다. 옛 모습 가꾸기는 또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를 제공해 주게 된다. 문화를 대변하고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에서 문화성은 중요한 목표가 된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을 들 수 있다. 정체성은 그 어느 목표보다도 중요하다. 옛 모습 가꾸기에 정체성이 결여되면 가치가 상실되고 만다.

2. 도시문화의 정체성(Identity)과 그 요소들

도시 정체성의 바탕에는 문화현상이 깔려있다. '문화'는 이제 국가간, 지역간 경쟁에서 가장 큰 무기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이제 곧 우리 앞에 닥칠 것이다. 지역문화가 민족문화의 보편성, 나아가 세계문화에 편승되어 버리면 이미 독창성을 상실하고 만다. 즉 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역의 독자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는 결국 앞으로 지방시대에 있어서 생존과도 그 맥락이 이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정체성은 또한 도시의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지역의 문화가 자원으로 활용될 때 지역의 정체성은 살아날 수 있고 지역의 존재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지역을 가 보아도 획일적이고 보편적이라면 방문할 이유도 없거니와 '지역'이니 '지방'이라는 가치도 단순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의 도시문화에 있어서 '지역성'이라고 하면 지역문화의 특징과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받아 들여져야 하고 또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담게 된다.

지방 도시에 있어서 문화의 보편적 이해는 민족문화라는 큰 범주 내에 있지만 그 범주에서도

특징적인 역사문화, 문화현상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역문화가 민족문화로 보편화되는 것은 지역의 존재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 도시문화의 정체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독특하면서도 지역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

정체성을 표현하는 요소로는 크게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형적인 것에는 건축, 도시를 비롯하여 자연경관, 역사적인 장소, 특산물, 유형문화재, 매장문화재, 공예품, 서책 등이 있고, 무형적인 것으로는 역사, 전설, 무형문화재, 지방색, 음악, 축제, 민속놀이, 방언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요소라 하겠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요소들

| 분 | 류 | 요 | 소 | 내 | 용 | 비 | 고 |
|--------|---|------|----|------------------------------|--|---|---|
| | | 건 | 축 | 역사적인 건축, 기록될만한 근대 및 현대건축 | 관아, 객사, 향교, 서원, 사찰, 반가, 민가, 근대건축, 현대건축 등 | | |
| | | 도 | 시 | 도시의 역사성, 아름다운 도시경관, 특색 있는 거리 | 역사적인 거리, 정감있는 거리, 장터, 신작로 등 | | |
| 유형적인 것 | | 자연경관 | |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존의 가치가 있는 자연경관 | 농촌풍경, 명산, 해안, 계곡, 들판, 수평선, 저녁노을 등 | | |
| | | 역사적인 | 장소 | 역사기록에 나타난 장소, 종교와 관련된 장소 |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곳, 유명 인물의 탄생지 또는 방문처, 순교지 등 | | |
| | | 특산물 | | 음식, 민속공예품, 공산품, 중공업제품 |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곳, 유명 인물의 탄생지 또는 방문처, 순교지 등 | | |

| 분 | 류 | 요 소 | 내 용 | 비 고 |
|--------|---|-------|--------------------------------|-----------------------------------|
| 유형적인 것 | | 자연경관 |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존의 가치가 있는 자연경관 | 농촌풍경, 명산, 해안, 계곡, 들판, 수평선, 저녁노을 등 |
| | | 유형문화재 | 국가 및 지방정부 지정 문화재 | 건축, 공예, 회화, |
| | | 매장문화재 | 선사시대 주거지, 각종 건물터 | 주거지, 절터, 성터, 우물 등 |
| | | 공예품 | 문화재, 민속공예, 장인의 제작품 | 장식품, 탈, 의상, 목제품 등 |
| | | 서책 | 역사, 민속, 군지 등 | 문집, 각종 읍지, 작품집, 관련서책 |
| | | 역사 | 기록에 나타난 도시의 역사, 지역의 역사, 역사적 사건 | |
| 무형적인 것 | | 전설 | 지역의 전설, 민담, 고사 등 | |
| | | 무형문화재 | 장인의 기술, 예인의 기예 등 | |
| | | 음악 | 농요, 농악 등 전통민속음악, 현대음악 | |
| | | 축제 | 동제, 지역축제, 민속축제 등 | |
| | | 민속놀이 | 전통민속놀이 | |
| | | 방언 | 재미있고 독특한 용어 | |
| | | 민간요법 | 지역의 독특한 민간요법(모래찜질, 건강식품 등) | |
| | | 5일장 | 정기적 서는 전통 시장 | |

3. 기획의 접근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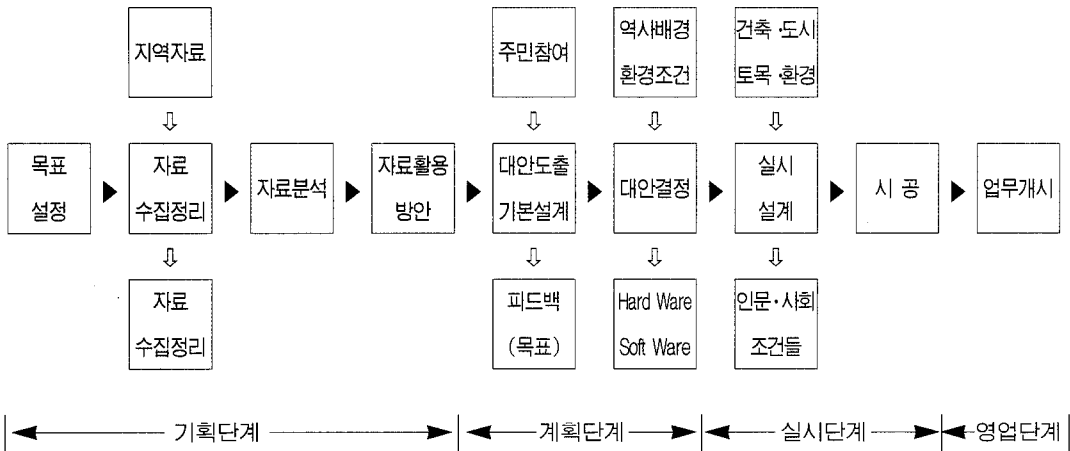
인습이 현대생활에 젖어 있어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건축이나 도시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옛 모습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겨지는 내용까지 옛 것으로 돌아가기란 어려운 일이다. '옛 모습'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과 당위성, 현대적 의미의 목적과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단계별 접근방

법이 필요하다.

실제로 사업이 구체화 되기까지는 크게 기획단계, 계획단계, 실시단계, 영업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글에서는 기획단계와 계획단계로 한정하여 언급하고자 한다.〈표 2〉

역사적인 지방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무엇보다도 목표의 설정이 명확해야 한다.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이해해야 하고 그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

<표 2> 과제 진행과정



한 삶의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제의 목표가 단순히 관광자원화에 치우쳐 주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주민편의를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발이 우선되어 문화환경이 훼손되어서도 안되고, 보존만을 위하여 개발이 무시되어서도 안된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목표를 훌륭하게 조화시켜 가야한다.

두 번째는 자료 수집 및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료는 앞에서 언급한 각종 요소를 기본으로 정리하되 추가될 수 있는 요소들은 모두 망라하도록 한다.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것을 포함하여 앞에서 언급한 모든 자료가 관광자원화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내용을 조사 정리한다. 중복된 자료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 자료들 중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의 활용 방법은 다르지만 유형적인 자료에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무형적인 자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형적인 자료가 더욱 중요하게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위한 분석과정이다. 즉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 활용방법에 대한 분석단계를 거쳐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자료 중에는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자료도 있고,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다. 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이미 지화 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물리적으로 현존하는 자료와 현존하지는 않지만 근거를 남기고 있는 자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자료가 조사 분석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형적인 것은 직접 사용이 가능하지만 무형적인 것은 유형적인 것과 함께 함으로써 활용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역사적인 사실은 그 역사적인 장소(또는 건조물)가 현존함으로써 관광자원화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으며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게된다.

네 번째는 자료의 활용방법 도출이다.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를 정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만들어 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건축과 도시, 자연공간, 역사적인 장소와 같은 유형적인 것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직접적인 자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만들어 내는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건축적으로 구체화되는 장소의 환경연구이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에는 자연 및 지리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초기단계에서 설정했던 목표와 부합하고 있는지 피드백(feed-back)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 단계에서 해야할 업무중에는 선행 사례조사도 포함되어야 한다. 선행 사례조사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장단점을 분석하여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참고하는데도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대안의 도출과 도면화 작업 단계이다. 대안의 추출은 우선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환경조건, 역사적 배경, 현존하는 자연경관 및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다. 그리고 선행 사례에서 분석된 각종 요소들을 참고로 진행된다. 작업에

서 가장 고려할 사항은 대상지역의 정체성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존하는 역사적 문화환경(문화재로 지정된 건조물 등)이 구체적으로 남아있을 경우 이를 중심으로 주변 경관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현존하는 문화환경이 없을 경우 장소성을 근거로 역사적인 내용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명확한 고증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시켜 역사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는 방안도 있다. 도면화 작업은 그 동안 진행되었던 자료분석 내용과 선행사례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도면화를 위한 기법과 내용들이 동원되며 이를 위하여 컴퓨터와 같은 첨단 도구가 사용되기도 한다.

Ⅲ. 도시경관과 문화의 정체성

1. 도시색과 지역문화

지방화시대는 지역문화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건축과 도시 경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건축을 단순히 도시를 만드는 요소로 보아서도 안되고, 도시를 건축의 집합체로 보아서도 안된다. 도시와 건축을 문화로 인식하고 문화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생각할 때 그 지역의 특징을 그려낼 수 있게 된다. 지방화 시대의 문화적 위상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른바 도시색이 명확해야 한다. 지방의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살려 그 도시만의 색깔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어

야 한다.

지역의 도시적 특징을 어떻게 이미지화 할 것인가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극히 부분적인 문화현상이 지역문화를 대표할 수는 없고, 우수한 지역 문화라도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많은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 이러한 문화요소를 발굴하여 재창출하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없다. 문화의 유기적 관계가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 생활 근저에서 재창조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지역의 문화와 지역성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흔히 보고 접하는 것이라도 관심을 버릴 때 지역문화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문화는 반드시 그 지역의 특수한 정보와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며 그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 문화에 대한 자긍과 정체성을 간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지방 도시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운동만으로 지역문화가 재창출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화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 재정적인 배려와 후원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으로 지역의 독특한 문화는 지역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며, 지역의 가치를 살리고, 나아가 세계화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미래는 흔히 문화전쟁 시대라고 하는데 문화전

쟁 시대의 최후 승리자는 '지역문화'이다. 정체성을 지닌 지역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도구는 바로 건축이고 이들이 모여 도시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문화환경과 함께 건축의 지역성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런 일은 반드시 지역의 건축가가 지역의 건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부의 건축가라도 지역의 정체성에 흡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지역이라도 그 지역의 정체성에 흡수될 수 있을 정도로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5년 6월 19, 20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세계건축도시전문가회의(ANYWISE)에서 많은 건축가들은 도시의 정체성, 특히 한국의 도시에 대해 심각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스페인 건축가 모랄레스(고등기술건축학교)는 "서울은 다른 도시와 비슷하다"라고 하였고, 미국 건축가 데이비드 하비(존스 홉킨스大)는 "서울은 내용이 형식을 앞섰다", "도시의 질서가 없다"고 한마디로 비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지역성이 없다, 볼 것이 없다는 말이다. 나아가 아시아에 있어서 북경이나 동경이 낫다는 의미의 표현도 하고 있다. 비록 서울을 대상으로 이야기 한 것이지만 우리 나라 지방 도시의 경관구조가 모두 이와 같이 특색 없는 획일화로 이루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독특한 도시문화를 계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중에는 도시, 건축뿐만 아니라 예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좋은 도시문화환경은

시민들의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게 된다. 나아가 활발한 투자요인으로 작용하여 간접적인 경제성장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건축이 관광자원화 될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흔히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가 되면 그 전시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다. 즉 문화를 즐기는 패턴의 변화가 가장 큰 것이라 하겠다. 그 전까지만 해도 문화는 일부계층만 향유하는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즉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대중적 소유시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를 삶의 도구로 보지 말고 인간의 생활문화를 담는 문화공간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공간은 누구나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화'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서 이제는 즐기고 소유하는(정신적 소유, 물리적 소유)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가고 있다. 문화의 권위주의 시대에서 대중적 교감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시대에 문화의 향유나 소유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조건이 있다. 첫째, 도시가 문화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 문화의 가치에는 절대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도 중요하다. 두 번째는 특정한 부류의 문화가 대중화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부계층만이 소유하고 즐겼던 고급문화가 대중화 되도록 하는 것이다. 건축문화가 전문가

의 영역에서 벗어나 대중화되도록 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 하겠다. 세 번째는 알려지지 않은 문화, 발굴되지 않은 문화, 숨어있는 문화를 찾아 문화향유권자에게 가깝게 접근시켜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화의 향유권자와 문화생산자 모두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단절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함께 조화하는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지역의 문화가 계승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들이 지역문화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지방도시의 행정가들이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2. 도시문화의 정체성을 위한 노력과 역할

도시가 물리적으로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역시 건축물이 중요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문화의 정체성은 건축의 정체성과 관련된다. 어느 도시를 보아도 경관구조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도시문화의 정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건축적 표현이 도시경관을 좌우하게 되고 도시경관이 그 도시의 정체성을 결정짓게 된다. 아무리 역사적인 건축물이라도 도시경관으로써 가치를 발휘하지 못할 때는 지역의 고유성을 나타낼 수가 없다.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질 수 없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방면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 지역 주민의 역할

도시 경관을 만들어 가는 주체는 말할 것도 없이 지역의 시민이며 주민이다. 행정 혹은 건축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민 참여가 필수 불가결이다. 그러므로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민 참가형 경관 가꾸기의 조직체로서, 도시 가꾸기 협의회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관문제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존적, 방어적이 아니고 이것으로부터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의를 반복하면서 도시 가꾸기를 해야 한다.¹⁾ 좋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실행시키기 위한 행정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행정가의 도움은 특히 중요하므로 주민 협의체에 행정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협의는 결국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생각해야 한다.

2) 행정 및 정책 담당자들의 역할

정책담당 행정가는 먼저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무와 책임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과제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도시경관 가꾸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동기를 부

여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옛 모습 가꾸기」에 대한 개념과 목표를 인식시키고, 성공적인 선행사례를 통하여 주민 참여 의욕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한다.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이를 육성,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역의 문화는 옛 모습 가꾸기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재 보존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아름다운 건축도 옛 모습 가꾸기와 연결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미래사회는 문화상품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은 '문화'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3) 민·관 공동작업의 역할

효율적인 「옛 모습 가꾸기」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 주민과 관의 공동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주민과 관의 공동작업의 순서는 준비단계를 거쳐 주민과의 접근단계, 주민과의 논의단계, 마지막으로 주민과의 상호 이해단계로 이어진다.(표 3)

준비단계에서는 옛 모습 가꾸기의 동기와 개념 및 목표를 정리하고 지역 문제 및 과제를 분석한다. 주민의 특성과 접근방법을 검토하는 작업과 함께 참여하여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1) 조용준 외 공역, 「도시건축의 경관창조(건축·마치나미|경관연구회 저)」(서울 기문당, 1998) 28쪽

〈표 3〉 민·관 공동작업의 흐름

| 단 계 별 작 업 | 내 용 |
|------------|--|
| 1. 준 비 단 계 | ① 「옛 모습 가꾸기」의 동기와 개념 및 목표를 정리 ② 지역 문제 및 과제 분석 ③ 주민의 특성과 접근방법 검토 ④ 참여 작업 프로그램 작성 |
| 2. 접 근 단 계 | ① 주민과 만나는 계기를 만든다. ② 주민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는다. ③ 「옛 모습 가꾸기」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
| 3. 논 의 단 계 | ① 구성된 협의회와 논의 ② 그 밖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과 논의를 거친다. |
| 4. 이 해 단 계 | ① 협의내용을 구체화 ② 계획안을 설명하여 이해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③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도록 한다. |

작성한다.

주민과의 접근단계에서는 주민과 만나는 계기를 만들고, 주민 대표자 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단계에서는 「옛 모습 가꾸기」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주민과의 논의단계에서는 구성된 협의회와 논의를 하고, 그 밖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과 논의를 거친다.

주민과의 이해단계에서는 협의내용을 구체화하고 계획안을 설명하여 이해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민·관의 공동작업이 가져오는 기대 효과는 첫째 관주도형에서 민관협동으로 주민의식이 변화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행정발의형에서 지역주민발의형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행정의존형에서 지역자율형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IV. 맺음말

충남의 역사문화도시 옛 모습 되살리기는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토개발이나 도시개발과 같이 단시간에 이루어 질 수는 없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문화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동참하는 「옛 모습 가꾸기」가 필요하다.

옛 모습 가꾸기의 '옛 모습'은 도시경관으로써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가 조화롭게 표출되어 지역주민과 함께 해야 하며 나아가 전통문화와 문화적 전통이 유기적으로 계승되어야 한다. 전통의 보존만큼 전통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발전이다.

현대사회에서 이제는 문화의 질이 높인다는 것만으로 문화행정이나 문화운동이 만족해서는 안 된다. 미래의 문화는 질의 문제가 아니라 에메니티(Amenity : 즐겁게 즐기는 것)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가고 있다. 방문하고, 소유하고, 느끼고, 즐겁게 즐길 때 문화의 가치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옛 모습 가꾸기」의 목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방문자에게 소유하는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공간은 주민의 안정성, 건강성, 쾌적성을 위하여 아름답게 꾸며져야 하며,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 사업은 단

시간에 이루어질 성격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기본 계획을 이해하고 스스로 동참할 때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계획이나 도시 설계는 주민의 이해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옛 모습 가꾸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규제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사업의 성패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정책 담당자나 행정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 문화운동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민 문화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주민 스스로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실패한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행정가나 전문가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명민용 김